

글로벌시대 흥미만점의 기후 콘텐츠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

목차

- 1 들어가며
- 2 KBS(TV) 〈지구 위 블랙박스〉, 실험적 형식의 대작
- 3 KNN(TV) 〈하얀 경고, 사라지는 바다숲〉, 지역민방이 소개한 바다숲 이야기
- 4 KBS부산(TV) 〈환경을 푸는 언박싱〉, 친근함과 지역성을 살린 기후 예능
- 5 OBS(Radio) 〈오늘의 기후〉, 매일 두시간 반씩 기후 이야기를 한다고요?
- 6 마치며

요약

이 글은 지상파방송사에서 2023년 하반기 제작·방영한 프로그램들 중 ‘기후 위기 콘텐츠’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며 지상파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선보인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전 지구적 관심사로 자칫 무겁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후 위기 소재를 다양한 형식과 접근으로 풀어낸 KBS 〈지구 위 블랙박스〉, KNN 〈하얀 경고, 사라지는 바다숲〉, KBS부산 〈환경을 푸는 언박싱〉, OBS 〈오늘의 기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후 위기를 다룬 네 편의 프로그램 속에 담긴 사회적 가치는 일상 속에 스미는 주간, 일간 방송의 가치가 더욱 돋보이게 한다. 특히 지역 중소방송사들이 지역성을 살려 기후문제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도 지구적인 문제를 지역적으로, 더 가까이, 더 일상적으로 기후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지역 지상파방송사에서 더욱 새롭고 가치 있는 시도들이 이어지길 바란다.

1. 들어가며

“요즘은 왜 착한 예능이 없지?” 옛날에는 MBC <느낌표>나 KBS <체험 삶의 현장>처럼 공익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왜 ‘먹방’ 아니면 남의 연애 훑쳐보는 예능밖에 없냐고 푸념하는 사람이 많다. 하기가 그렇다. 채널과 플랫폼은 많아졌지만, 콘텐츠들은 점점 말초적이고 개인화되었다. 자극적이고 사사로운 콘텐츠가 대세인 지금, ‘공익적 프로그램’이라니 희귀템이라도 찾는 기분이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에서는 여전히 공익적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다.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 시청률이나 화제성은 낮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누군가는 꾸준히 만들고 있다. 특히 전 지구적 문제라 할 수 있는 기후 위기를 다룬 콘텐츠들이 눈에 띈다.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기후 위기라는 소재를 다양한 접근으로 풀어낸 KBS <지구 위 블랙박스>, KNN <하얀 경고, 사라지는 바다숲>, KBS부산 <환경을 푸는 언박싱>,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등이 꼽힌다.

2. KBS(TV) <지구 위 블랙박스>, 실험적 형식의 대작

<지구 위 블랙박스>는 KBS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2023년 10월에 방송한 4부작 환경 예능이다. 제작비가 24억, 제작 기간이 500일이나 소요된 대작으로, 남극, 스페인, 태국, 제주도, 강원도, 서울 등 국내외 6개 지역 로케이션으로 제작되었다. 2021년에 <오늘도 무해하게>라는 전무후무한 ‘기후 예능’을 만들었던 KBS 구민정 PD가 공모전에 제출한 기획안이 1등으로 뽑히면서, SF드라마다큐멘터리-콘서트가 결합한 독특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각본 작업에 SF소설가 천선란 작가가 합류했고, 배우 김신록, 박병은, 김건오가 출연해 디스토피아적 근미래 세계관을 형성했다. 여기에 뮤지션으로 윤도현, 김

[그림 1] 지구 위 블랙박스



출처 : KBS

윤아, 최정훈, 정재형, 대니 구 등이 참여해,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간절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방호복으로 완전무장한 ‘윤(김신록 분)’이 등장하고, 그가 사는 공간을 비춘다. 이곳은 집처럼 생겼지만 집이 아니다. 바깥은 모래폭풍과 섭씨 89도에 달하는 햇빛뿐이다. 여기가 어디냐고? 2054년의 사람이 살지 않는 지구다. 2049년에 지구는 폭염, 산불,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거주불능지역’으로 선포되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소수의 사람만이 방공호에 탑승해 지구를 떠나 두 번째 달이 되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지구에는 데이터센터만 남아있다. 이곳에서 한 명이 머물며 지구의 변화 상황을 매일 기록하며, 방공호에 있는 생존 인류들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지구에 인류가 귀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말이다. ‘윤’은 황폐해진 지구 위 블랙박스(데이터센터)에서 AI 리스와 대화를 이어가다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과거 지구의 기록을 찾아보며 감회에 젖기도 한다. ‘윤’은 2023년의 자료를 돌아보다 뮤지션들이 기후 위기를 경고하며 노래했던 기록을 찾아낸다.

[그림 2] 지구 위 블랙박스



출처 : KBS

이런 액자식 설정을 뒤로하고, 가수 최정훈이 지구온난화의 최전선 남극을 직접 찾아가는 여정이 등장한다. 꼬박 9일이나 시간을 들여 들어갈 수 있었던 남극에는 눈과 얼음으로 덮이지 않은 맨땅이 드러나 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2배 면적의 얼음이 사라졌다. 실시간으로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는 빙벽을 배경으로 최정훈이 노래하는 장면은 기이한 심상을 불러일으킨다. 이 장면은 이탈리아 음악가 Ludovico Einaudi(루도비코 에이니우디)가 그린피스(Green Peace)와 협업해 무너지는 빙하를 배경으로 북극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Elegy for the Arctic, 북극의 비가(悲歌)> 영상을 연상시킨다. 형언할 수 없는 종말의 위기감이 스미는 것이다.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해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이 수몰 위기에 처한다. 자카르타와 투발루는 물론이고,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 프로그램은 먼 나라로 갔던 시선을 국내로 돌린다. 가수 윤도현이 동해안을 돌며 연안 침식으로 해변 모래가 사라지고 해안에 절벽이 생긴 곳들을 보여준다. 해수면 상승으로 너울성 파도가 일어나면서 생긴 일들이다. 2015년부터 축구장 100여 개 면적의 백사장이 사라졌다. 물론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가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2049년에 지구가 이미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아포칼립스(Apocalypse, 종말)적인 근미래 설정을 취하고, 그때 홀로 지구에 남은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한 채 2023년의 순간을 돌아보니 안타까움이 와닿는다. ‘아, 저 때도 이미 저런 조짐이 보였는데, 저 때라도 뭐든 했었어야 했는데!’ 하는 회한이 강렬하게 드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2부에서 2080년의 미래를 보여준다. 데이터센터에 홀로 남은 ‘한스(박병은 분)’가 점점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방공호에서 보내오는 다급한 요청에 따라 지구에 인류가 귀환할 수 있는지를 타진 중이다. ‘한스’는 어린 시절 기후 난민이 되었다. 살만했던 지구에 대한 기억은 없다. 그도 지구가 마지막 경고를 보내던 2023년의 기록을 찾아본다. 스페인의 산불 지역에서 가수 김윤아가 <세상의 끝>을 노래하고 댄서 모니카와 립제이가 퍼포먼스를 한다. 김윤아가 지구를 형상화한 듯한 여러 겹의 옷을 찢는다. 퍼포먼스는 직관적이면서 신령한 느낌이 그득하다. 프로그램은 죽음의 땅이 된 스페인 산불에서 호주 산불을 거쳐 동해안 산불로 시선을 옮기며, 고온 건조해지는 지구의 이상 기후 문제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환기한다.

3부에선 2123년의 미래를 그린다. 100년 뒤 인류 ‘니오(김건우 분)’가 둘러보는 2023년의 영상기록에는 태국의 맹그로브 숲이 나온다. 강에 뗏목을 띄우고, 그 위에 그랜드 피아노를 얹었다. 뮤지션 정재형의 피아노와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의 바이올린이 환상적인 이중주를 만들어낸다. 비현실적으로 아름답지만, 한편으론 찰나적인 슬픔을 간직한 장면처럼 보인다. 원경을 이루는 맹그로브 숲은 열대우림의 4배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최근 새우 양식장과 팜유 농장으로 인해 급속도로 사라지는 중이다. ‘지구의 마지막 허파’가 남기는 우아한 영정사진인지도 모르겠다.

[그림 3] 지구 위 블랙박스



출처 : KBS

프로그램은 서사 말미에 데이터센터에서 지구의 현재를 기록하고 인류 귀환을 판단하는 인물이 무작위로 뽑힌 것임을 알려준다. 것처럼 무거운 결정권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모든 개개인에게 주어지다니! 어떤 자격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책임을 골고루 나눠서 지고 있다는 가르침은 각별한 울림을 준다. 지금도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책임을 특별하지 않은 우리 개개인이 나눠서 지고 있음을 은유한다.

과거 환경 콘서트의 표어 중에 ‘내일이면 늦으리’라는 것이 있었다. <지구 위 블랙박스>는 ‘이미 늦은 내일’의 관점에서 오늘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미 망한 지구의 잔해에서 기록으로 남은 오늘의 인간됨을 들여다본다는 설정은 ‘아직 완전히 늦지는 않았음’에 안도하며,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서 간절한 호소를 보내는 중이다.

3. KNN(TV) <하얀 경고, 사라지는 바다숲>, 지역민방이 소개한 바다숲 이야기

<하얀 경고, 사라지는 바다숲>은 2023년 11월에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사인 KNN에서 방송한 특집 다큐멘터리이다. 프로그램은 언론사 최초로 우리나라 전 해역의 갯녹음 실태를 다룸며, 이를 되돌리기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을 보여준다. 바다숲은 바다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대형 바다조류 군락을 말한다. 이 바다숲이 사막화되는 현상을 갯녹음이라 한다. 바

닷물로 밀려들어온 해양쓰레기와 화학 비료에 들어 있던 탄산칼슘이 해수 온도 상승으로 고체로 변해 바위에 달라붙는데, 이런 바위에는 해조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 바닷속이 하얀 사막으로 변한다. 전 세계 바다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매년 1200ha(1200만 제곱미터)씩 갯녹음 면적이

늘고 있다. 프로그램은 울릉도, 거제, 제주 등지에서 심해지고 있는 갯녹음 실태를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제주 서귀포시의 갯녹음이 가장 심하다. 2년 사이 갯녹음 면적이 2배로 늘었는데, 쿠로시오 난류가 제주 바다의 해수온을 급격하게 올려 아열대 바다로 바뀌고 있다.

[그림 4] 하얀 경고, 사라지는 바다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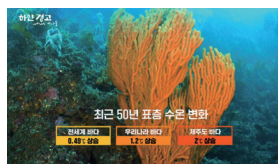


출처 : KNN

[그림 5] 하얀 경고, 사라지는 바다숲



출처 : K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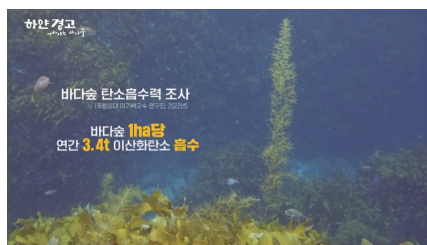
그동안 해양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바로 ‘바다숲 조성사업’이다. 2009년부터 1조 5천억이 넘는 국비 예산을 들여 전국 연안 228곳에 3만 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인공어초를 넣는 사업을 벌였다. 2012년부터는 매년 5월 10일을 ‘바다 식목일’로 정하고 감태, 모자반 등 해조류를 심었다. 그렇다면 이후 해양생태계는 잘 살아났을까. 제작진이 조사팀과 함께 포항, 강릉, 제주 바다를 둘러보았다. 결과는 썩 좋지 못하다. 서식환경에 맞지 않은 해조류를 심거나, 생태에 맞지 않는 시기에 바닷말 이식이 이루어진 탓이다. 중앙정부가 바다숲 조성을 마치면 관리는 지자체로 떠넘겼는데, 지자체 중에는 예산이 한 톨도 배정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그 결과 해조류와 해저 서식 동물이 오히려 3분의 1이나 감소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결과가 좋지 않다. 인공어초 위주의 바다숲 조성사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프로그램은 호주 연구진들과 함께 호주 바다를 둘러본다. 여기서도 갯녹음이 심각하게 관찰된다. 호주의 연구진들은 인공어초가 아닌 자연 암반과 모래를 택하고, 적합한 갈조류를 골라 해수 온도 상승에 맞춰서 생육시키기 위해 10년 이상 조사와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바다숲을 살리려는 다양한 연구가 펼쳐지고 있다. 민간연구팀이 강원도 강릉 해변 바다숲 조성사업에 처음으로 홍조류를 이식해 미역과 모자반이 숲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강원도 양양에서는 어장 휴식제로 구역을 나누어 3년~5년 단위로 어획을 금지해 생태계가 살아나도록 하였다. 경남 통영에서는 환경단체가 벼농사의 모판처럼 거머리말을 키워 바다에 심었다. 경북 울릉도에서는 정부가 인공어초가 아닌 자연 암반에 직접 해조류를 심고 붙이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되살리고 있다.

[그림 6] 하얀 경고, 사라지는 바다숲



출처 : KNN



바다숲은 최근 새로운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해양생태계가 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블루카본(Blue Carbon,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이라 불린다. 해양은 육상보다 탄소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빠르고 저장 능력도 뛰어나다. 해조류의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저장 능력 분야는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다. 최근 포항공대 연구진은 바다숲 1ha(1만 제곱미터)가 탄소 3.4t까지 저장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바다숲이 해양생태계를 넘어 지구를 살릴 탄소 중립의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하얀 경고, 사라지는 바다숲>은 중앙 방송에서 잘 다루지 않는 해양 환경 이야기를 지역민방의 특성을 살려 다큐멘터리로 충실히 담아냈다. 갯녹음이 무엇인지 널리 알려지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은 그 개념과 실태를 잘 소개하고, 이를 되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지 차분히 보여주었다. 다만 바다숲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진 사업인지 정

확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쉽다. 매우 큰 국책사업이었던 만큼 성공과 실패에 대한 냉정한 지적과 평가가 있어야 함에도 비판이 두루뭉술하다. 프로그램은 비판이나 고발보다는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와 시도에 초점을 맞췄다. 그럼에도 <하얀 경고, 사라지는 바다숲>이 발굴한 유효적절한 아이템은 후속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도 좋을 듯하다. 가령,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탐사보도 형식으로 한 편 만들고, ‘인공어초를 넘어서 바다숲 만들기’의 다양하고 섬세한 접근법으로 또 한 편을 만들고, ‘블루카본’에 대한 새로운 연구로 또 한 편을 만드는 것이다. KNN에서 의욕을 가지고 장기 프로젝트로 해봄직한 작업이다.

4. KBS부산(TV) <환경을 푸는 언박싱>, 친근함과 지역성을 살린 기후 예능

<환경을 푸는 언박싱>은 KBS부산총국에서 기획하여 작년 5월부터 부산과 경남지역에 송출하는 생활 밀착형 예능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40분에 30분간 방송된다. 환경을 주제로, 특집 교양 프로그램이 아닌 평일 저녁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환경을 푸는 언박싱>은 재미와 정보의 균형을 적절히 잡아낸다.

[그림 7] 환경을 푸는 언박싱



출처 : KBS부산



프로그램이 가장 공들인 대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친근함이다. 메인 MC로 방송인 광희를 내세워 친밀감을 높였다. 광희의 진행방식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살갑고 편안하게 수다를 떠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심각하지만, 당위나 윤리로 올바른

을 강요받는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재미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고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이런 분위기에 광희의 살갑고 중성적인 느낌이 딱 맞는다. 또 한 명의 MC 성은진의 씩씩한 태도와 안정감 있는 입담도 프로그램이 안착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언박싱’이라는 제목도 신상을 오픈하는 듯한 호기심과 두근거림을 자아낸다. 프로그램은 미래환경 개발팀이 가상의 발명품을 개발하여 선보인다는 설정을 취한다. ‘음식이 자동으로 분배되는 접시’나 ‘미세플라스틱을 먹는 문어’처럼 가벼운 아이디어 상품들을 제안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흥미를 돋운다. 출연자들의 캐릭터와 예능의 자잘한 설정을 잘 버무려 지루할 짬을 주지 않는다.

둘째는 지역성이다.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현안을 다룸으로써 화제성을 높인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학자와 활동가가 게스트로 등장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지역주민 그중에서도 특히 주부, 청소년, 어린이의 참여도를 높였다. 지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낙동강 녹조와 식수 문제를 여러 차례 편성해 깊이 있게 방송한 대목이나, 부산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여 자부심이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찾아가서 보여주는 대목 등은 지역성을 드러내는 예이다.

[그림 8] 환경을 푸는 언박싱



출처 : KBS부산



셋째는 실천성이다. 보통 다큐멘터리들은 고발이나 지식 전달에 그치지만, 이 프로그램은 직접 체험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을 강조한다. 스튜디오에 낙동강 녹조를 퍼서 가져와 냄새를 맡고, 녹조 물에서 키운 양파를 잘라 보인다. 방송사 옥상에서 6개월간 녹조 물과 수돗물로 채소를 길러 성분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여 결과를 발표한다. 실제로 작물 성분 비교검사에서 녹조 물로 기른 당근 등에서 녹조의 대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그

밖에도 강의 자연 정수가 가능한지를 실험 모델을 통해 보여주며 낙동강 재생 프로젝트에 힘을 싣는다거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나 배달음식 포장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하는 등 실천에 진심이다.

한 번의 고발프로그램을 보고 분노하거나 걱정하고 마는 것보다, 매주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실생활에 젖어 들듯이 즐겁게 환경문제를 알아나가고 지역 안에서 관심과 실천을 높이는 것이 기후 위기 극복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5. OBS(Radio) <오늘의 기후>, 매일 두 시간 반씩 기후 이야기를 한다고요?

<오늘의 기후>는 OBS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음악, 토크, 정보, 청취자 사연 등을 곁들인 라디오쇼다. 여느 라디오쇼와 다를 바 없는 형식으로, 매일 기후 문제를 다룬다. 기후 위기 문제와 대응을 시민 눈높이에서 다루면서 전문가와 청취자들이 생활 속에서 답을 찾아보자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2023년 3월 말 OBS 라디오 개국과 함께 <기후만민공동회-오늘의 기후>라는 제목으로 평일 오전 1시간 방송으로 출발했는데, 8월부터는 2시간으로 분량이 늘었다. 2024년 2월 19일부터는 제목이 <오늘의 기후>로 간단하게 바뀌고, 방송시간도 퇴근 시간대로 옮겨지면서 분량도 2시간 30분으로 늘어났다. 현재 심야 시간에는 재방송이 송출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스페셜 방송이 나간다. 매일 저녁 5시부터 7시 반까지, 완전 황금시간대를 점유하고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놀랍다. 첫째, 기후 이야기로 매일 이렇게까지 할 말이 많은 말인가? 둘째,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이 순전히 기후 문제에 이렇게나 많은 시간을 편성할 수 있던 말인가?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들어보면 이렇게 다채로운 아이템이 기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두 번 놀라게 된다. 실생활과 밀접한 건축, 농업, 음식, 패션, 교통 등이 모두 기후

[그림 9] 오늘의 기후



출처 : OBS

와 연관이 있다. 알고 보니, 모든 길은 기후로 통하고 있었다! 또한 기후와 환경문제에 관심을 둔 청취자들이 매우 많고 청취자 참여도도 높다. 매일 문자와 SNS로 시민들의 기후 제보를 받는 ‘기후 특파원’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방송에서 다 소개를 못할 만큼 제보가 쏟아진다. 이렇게나 할 말이 많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던 말인가. 하기가 기후 문제야말로 모든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논하기 쉬운 주제다. 자고로 스몰 토크에서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금기이지만 날씨 이야기는 언제나 환영이다. 더욱이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앞에서 모두가 이해 당사자다. 그동안 방송에서는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권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시민 모두에게 발언을 개방하고 참여를 끌어내자 모두가 당사자로 발언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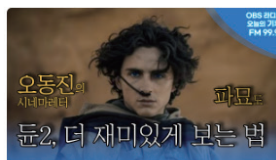
[그림 10] 오늘의 기후



이기관의 미래가상뉴스 '내일의 기후'
방송일 : 2024-02-25



여기는 라오스, 감글재배 기술도 전수합니다.



오동진의 영화이야기 : 둔2, 파묘, 대통령의 사람들



금사과, 금배... 농산물 유통의 해법을 찾는다



불광동 막걸리 장인 인터뷰



[퇴근길 오기후] 데스밸리에서 카약 띄워 뱃놀이를?

출처 : OBS

프로그램은 출발부터 시청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첫 방송부터 대국민 오디션 방식으로 프로그램 진행자를 공모해 청취자들이 직접 시민 DJ를 뽑는 방식으로 출발하였다. 수많은 지원자 중 추려진 5명의 후보가 총 5주 동안 요일을 달리하여 실제 생방송을 진행해 보는 오디션을 거쳤다. 전문가와 제작진과 청취자들의 투표로 지상파 최초의 ‘기후환경 DJ’로 김희숙 작가(번역가 겸 북클럽 유튜버)가 선발되었다. 이런 오디션은 단순히 청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사가 아니다. 프로그램 진행자도 시민의 한 사람이자 청취자에 의해 뽑힌 대표로서

마이크를 잡고 말한다는 대의 민주주의적 상징성을 담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시민 참여형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뜻이고, 청취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겠다는 뜻이다. 이런 취지가 읽혔는지 <오늘의 기후>는 시작 두 달 만에 한국PD연합회에서 현직 PD들이 직접 심사하고 선정하는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는 기후 문제를 먹거리, 주택과 자동차 등 일상 소재로 접근한 점이 돋보였고 시민으로 구성된 기후 토포원과 소통하며 지역방송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가 있었다.

두 번째 편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OBS 라디오가 어떤 채널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OBS는 TV 채널만 운영하다가 작년 3월에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 방송사업자에 응모해 주파수 99.9MHz(과거 경기방송의 주파수)의 새 주인이 되었다. OBS가 라디오 플랫폼을 갖고자 한 이유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포괄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TV와 협업하고 공존하여 지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임을 밝힌 바 있다. 즉 개국부터 지역성, 시민참여, 열린 방송, 공동체 등을 염두에 두었다. OBS 라디오는 서울 소재의 중앙방송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유일한 ‘지역방송’임을 표방한다. 즉 ‘만들어가는 지역성’을 모토로, 경인 지역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애착을 가지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꾸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러한 기조는 시민들과 지역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지역 시사 뉴스를 방송하고, <전국라디오자랑>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24개 소규모 공동체 라디오들의 송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늘의 기후>라는 지역성과 시민 참여성이 돋보이는 기후 프로그램의 과감한 편성도 방송사의 이러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6. 마치며

이상 기후 위기를 다룬 네 콘텐츠가 지닌 사회적 가치는 엄청나다. 대작을 표방한 KBS 특집방송도 훌륭하지만, 꾸준히 일상 속에 스미는 정규방송의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 특히 지역 중소방송사들이 지역성을 살려 기후 문제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에 더 주목할 만하다. 지구적인 문제를 지역적으로, 더 가까이, 더 일상적으로 기후 문제를 생각할 때이다.